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351.2	16.1	118,000	-0.4	-6.7	-11.6	-8.2	82.2	39.4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032.6	21.0	309,000	-0.3	-6.6	-13.8	-10.7	4.2	3.5	0.6	0.5	14.1	14.7
현대일렉트릭	374.6	6.5	18,400	1.7	-17.3	-38.8	-17.1	1.7	1.5	0.2	0.1	9.3	9.7
현대건설기계	821.5	11.5	41,700	0.1	-12.6	-20.4	-2.3	2.6	2.0	0.3	0.3	11.7	13.9
삼성중공업	4,926.6	19.9	7,820	0.3	-8.4	-14.6	5.5	49.3	24.5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125.0	11.9	29,150	-3.6	-1.9	-6.9	-14.6	10.2	11.5	0.9	0.8	9.0	6.2
현대미포조선	1,981.1	13.7	49,600	-0.5	-13.7	-18.2	-17.3	10.7	7.7	0.4	0.4	3.6	4.8
한진중공업	596.2	20.5	7,160	-0.1	-12.9	20.3	-13.5	144.0	35.9	1.0	1.0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205.3	21.6	81,200	-0.2	-4.8	-10.3	-24.1	14.3	14.0	2.0	1.8	14.6	13.3
두산밥캣	3,303.2	25.6	32,950	-0.6	-0.5	4.1	4.6	12.1	11.4	0.9	0.9	7.4	7.6
현대로템	1,615.0	4.3	19,000	-1.3	-9.1	-21.3	-31.8	24.5	16.7	1.1	1.0	4.5	6.3
하이룩코리아	222.6	46.6	16,350	2.2	-17.8	-12.1	-0.6	7.4	6.8	0.6	0.6	8.8	9.0
성광벤드	310.3	18.1	10,850	-0.5	-7.3	3.3	-4.8	959.1	38.9	0.7	0.7	0.1	1.8
태광	273.0	11.7	10,300	3.5	-14.2	-7.2	-12.0	61.5	30.0	0.6	0.6	1.0	2.1
두산중공업	1,273.5	12.8	6,300	-1.6	-10.1	-10.0	-25.0	-18.9	12.4	0.3	0.4	-0.1	1.8
두산인프라코어	1,348.9	16.4	6,480	-0.8	-9.9	-15.7	-14.6	4.4	4.8	0.7	0.6	17.7	13.6
HSD엔진	124.2	3.4	3,770	0.8	-7.5	-22.0	-28.6	-9.9	-7.3	0.5	0.7	-4.7	-8.9
한국항공우주산업	3,294.7	16.4	33,800	1.8	2.9	-10.6	6.0	49.3	21.7	3.0	2.8	6.1	13.6
한화테크윈	1,634.1	14.6	31,400	1.1	1.8	-7.9	-3.4	130.1	24.5	0.7	0.7	0.6	2.8
LIG넥스원	723.8	7.3	32,900	0.2	-9.4	-14.8	-11.0	75.8	N/A	1.5	N/A	2.4	3.7
태웅	202.1	3.7	10,100	3.0	-1.0	-2.9	-3.8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40.4	5.8	8,910	2.4	-11.8	2.4	15.4	-18.8	13.8	3.3	2.6	-16.2	21.3
한국카본	351.7	14.1	8,000	0.0	-8.8	-0.7	13.6	124.6	26.3	1.1	1.1	0.9	4.3

주: 카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Mediterranean Shipping Co lines up \$910m boxship replacement order

컨테이너선사 MSC는 중국 Yangzijiang 조선소에 1.2만TEU급 컨테이너선 7+3척을 9.1억달러에 발주하기 위해 접촉했다고 알려짐. 선박은 스크러버를 장착할 예정이며, 선가는 해당 9,100만달러 수준임. 해당 발주는 중국 Jinhai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채무문제로 인도 불확실한 5척)을 대체할 목적으로 발주되었다고 알려짐. (TradeWinds)

글로벌 '3개 해운동맹' 러브콜에...현대상선의 행복한 고민

현대상선은 2020년 4월 2M과 협력관계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동맹을 찾아야 하는 상황임. 현재 2M을 비롯해 Ocean Alliance, The Alliance 등 글로벌 3대 동맹이 모두 현대상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짐. 현대상선은 2020년 2분기부터 초대형 컨테이너선 인도를 통해 선복량이 약 2배 늘어날 예정임. 가입여부는 7~8월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투데이)

24시간 출입문 봉쇄한 노조... 현대중 '현장실사' 난항

현대중공업 실사단은 3일 노조의 저지로 두 차례 실사에 실패한 뒤, 4일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철수함. 다만 예고한대로 14일까지 현장실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오는 7일이나 10일에 육포조선소 진입을 재시도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현장실사가 예정된 14일 까지 당직체제로 24시간 실사단의 움직임을 감시할 계획임. (연합뉴스)

채권단에 또 손 벌리는 성동조선 노조

성동조선해양 노조는 매각에 실패하면 채권단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알려짐. 법원이 노조 요청을 받아들이면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추가자금 지원을 피하기 어려움. 업계에서는 18년 10월 1차 M&A 시도, 19년 2월 2차 M&A 시도에 이어, 이번 3차 M&A도 성사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한국경제)

Shell focuses on energy transition

오일메이저 Shell은 2021~25년간 연평균 300억달러 규모의 현금을 capex에 사용할 계획을 밝힘. 동기간 110~130억달러를 Upstream에 투자할 계획임. 세부 구성은 40~50억달러는 심해, 30~40억달러는 Shale, 40~50억달러는 전통적인 오일과 가스에 대한 투자로 나뉨. Shell은 대략 브렌트유 기준 60달러에 생산을 목표한다고 알려짐. (Upstream)

한진중, 4000억에 동서올터미널 매각

한진중공업은 동서올터미널 부지를 신세계 프라퍼티와 KT&G 컨소시엄이 만든 SPC에 매각한다고 알려짐. 가격은 4,000억원 규모 협상 중이며, 장부가액(3,400억원)을 17% 가량 상회함. 매각대금 90%를 현금으로 받고, 10%는 SPC에 현물출자할 계획임. 매각이 확정되면 서울시와 논의 후 지상 44~45층, 3개동으로 재개발할 계획임. (파이낸셜뉴스)

Valles Steamship takes up Aframax newbuilding option

홍콩 Valles Steamship은 일본 Sumitomo Heavy Industries에 Aframax 탱커 옵션선 1척을 발주함. 해당 선박은 11.2만DWT급 탱커로, 올해 1월에 첫 발주됨. 선가는 4천만달러 상단으로 예상됨. 최근 Aframax 선박 수주건고는 중국 조선소와 일본 Sumitomo 조선소만 보유함. 삼성중공업은 해당 선박 건조를 끝냈음. (TradeWinds)

두산공작기계 스티스트에 '브룩필드·베인·베어링·칼라일'

두산공작기계 인수 스티스트(적격예비후보)에 브룩필드셋매니지먼트, 베인캐피탈, 베어링 PEA, 칼라일 등이 포함되었다고 알려짐. 매도자 희망가는 최대 3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16년 MBK파트너스 매입가는 1.1조원임. 원매자들이 책정하는 적정거래가는 희망가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그 경우 다시 IPO를 진행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음. (더벨)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6월 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6월 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6월 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편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